

타국살이 설움 훌훌...“한마당 행사 자주 열렸으면”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들의 축제 ‘가을 한마당’ 가보니

베트남 등 6개국 240여명 참여...장기자랑 등 웃음꽃 만발 한국인 노무사·통역사 현장 노동상담...진도서 올라오기도

“타국에 일하러 와 힘들고 쓸쓸했는데, 고국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로가 되네요. 매년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가을 한마당’ 행사가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에는 6개국 24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 노무사와 한국노동자 70여명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체육대회가 아닌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등 6개국 노동자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그동안의 노고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줄다리기, 200m계주 등의 체육행사도 있었지만, 노동인권 퀴즈와 각국의 장기자랑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행사 동안 공원에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어린 자녀들이 BTS와 아이브 등 K팝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어른들도 동참했다.

태국 노동자들은 전통 옷을 입고 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고국의 향수를

달랐다. 외국인노동자 뿐 아니라 노래소리에 이끌려 온 동네 주민들도 이들과 함께 천막에 앉아 보쌈과 김치를 먹으며 정을 나눴다.

본격적인 체육행사가 시작되자 한국을 포함한 7개국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워졌다. 현장의 분위기는 마치 올림픽을 방불케 했다.

특히 15명이 참가하는 줄다리기에서는 신경전이 대단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할지를 두고 논쟁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응원하며 상대팀을 압박했다.

줄다리기 결승전은 태국과 미얀마의 승부였다. 태국 노동자들은 모두가 잔디밭에 나와 “응! 응!(당겨)”, “후!(화이팅)” 등을 외치며 응원했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

마냥 즐거운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의 불법노동행위 상담을 받기 위해 이날 진도에서 광주까지 올라왔다.

그는 “진도에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수소문 끝에 행사장을 찾았다”고 하소연했다. 행사장에서는 통역사, 노무사들이 4건의 외국인 노동인권 상담을 진행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오늘처럼 다같이 모이는 자리



광주·전남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운남근린공원에서 체육대회를 즐기며 단합을 다지고 있다.

가 마련되면 한국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생활 8년차인 태국인 단(DAN·30)씨는 “초기에는 일은 어렵고 말이 통하지 않아 참 힘들었다. 지금처럼 다같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다면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했을 것 같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 하남산단의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우민소(OOMINSOE·28)씨는 “미얀마에서 처음 왔을 때는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주 다치고 한국말로 못해 서러웠다”라며 “같은 노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스님들도 참석했다.

한 달전 한국에 입국한 소티(SOTHY·43)씨와 페아라(PHEARA·40)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 향수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해주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길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회원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

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년에도 행사를 열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말을 들으니 뿌듯하다”면서 “내년에는 전남에서 1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모이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1월 기준 약 2만 4000명이다.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유학생, 귀화자 등을 포함하면 수는 더 늘어난다. 광주 전체 인구의 약 3%가 외국인 주민이고, 전남은 인구의 약 4%가 외국인 주민이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

학교전담경찰관 태부족...그마저도 감소세

광주·전남 5년간 20여명 줄어...1인당 ‘학생 수천명’ 담당

광주·전남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감소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 2017년 8월 3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5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남은 80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광주·전남에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불잡힌 학생들은 증가세인데 반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5년간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890명(2017년)→981명(2018)→1016명(2019)→806명(2020)→1042명(2021)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등 고교 일수가 줄면서 추측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광주의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

는 6791명에 달하며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교는 13.6곳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3.2곳의 학교에서 272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O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학교 학생·학부모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맡는다.

1명 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10개를 넘는 환경에서 전담 경찰이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하면서 신고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 현실화, 학교 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법 제법 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비 온 뒤 쌀쌀

광주·전남 오늘 5~30mm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4일 비가 내린 뒤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대가 발달해 4일 새벽부터 광주와 전남에 5~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비로 낮 최고기는 29도 안팎의 낮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비가 내린 뒤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5일부터 기온이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외가 되겠으며 낮 최고기온 또한 20도 내외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후 당분간 낮 최고기는 20도 내외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일교차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대리 시술·허위 광고 의사들 유죄 잇따라

일명 ‘겉그림주사’로 알려진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하게 하거나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진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원을 유지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 2명에게 CPL(일명 겉그림주사) 시술을 총 50차례 대리 시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원장·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문 분야인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허위 약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고, CPL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는 인터넷에 각종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 약 4년 6개

월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이지영)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과사 B(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트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인을 ‘돌팔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영상에서 “발치 교정 뒤 10년 동안 목·어깨 통증을 겪은 환자를 응급 처치해 17시간 만에 통증을 75% 감소시켰다”면서 “특정 통증을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효영)도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과사 C(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치과과사가 아님에도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 320만원을 받고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치아 3개를 발치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치료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30점 이상 (10%) 180,000 40점 이상 (15%) 170,000 50점 이상 (2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